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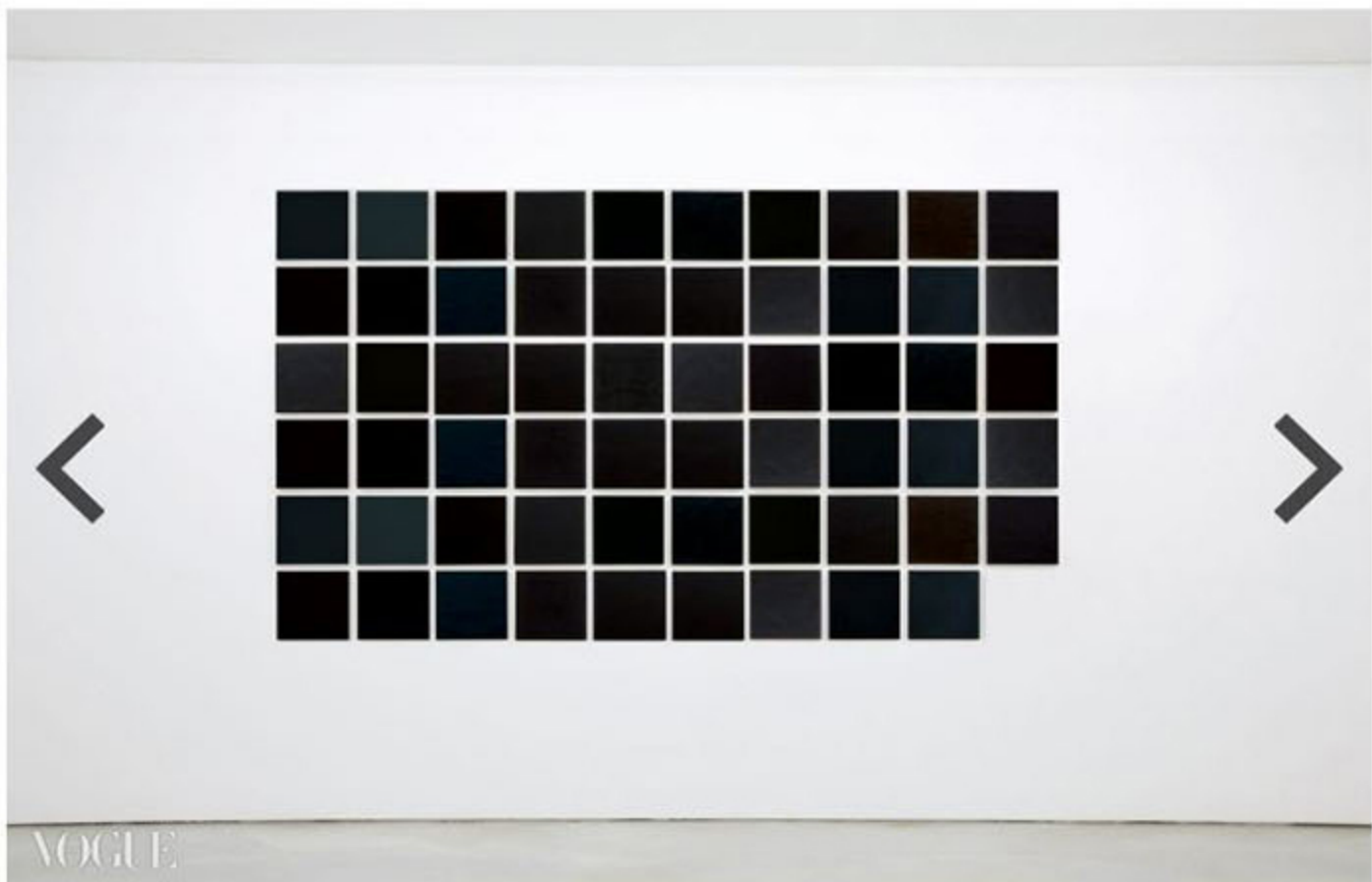
## News

NEWS &gt; HOME

## ART CONCERT

미술관 산책

&lt;VOGUE.COM&gt; 2014.11.28

박미나 <2014-Black>

바우하우스의 예술 실험실이 서울을 찾는다. **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<바우하우스 무대실험-인간, 공간, 기계>전**이다.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문을 연 후, 1933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무대를 놀이터 삼아 일상을 예술로 만든 바우하우스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. 서울관에서 11월 12일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바우하우스의 20세기 모더니즘의 뒤를 잇는 전시는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오늘날 이 땅의 문화와 예술을 유추해보는 **<청춘과 잉여>전**. 박찬경, 이완, 안규철, 박미나, 정연두 등 그 이름만으로도 흥미로운 텍스트가 기대되는 이번 전시는 11월 20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커먼 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.

[f](#) FACEBOOK
 [t](#) TWEET
 [p](#) PRINT
 [e](#) EMAIL

## CREDIT

에디터 - 피쳐 에디터 / 이미혜  
 사진 - COURTESY PHOTOS  
 출처 - Vogue website